

악당 주인공으로 내세운 '베놈'



스파이더맨의 숙적... 기존 '마블'과 다른 방향 SUMC 시리즈 첫 작품, '아이언맨' 1편과 흡사

'마블'이 돌아왔다. 지난 7월 '엔트맨과 와스프'로 국내 관객 544만 7,825명을 불러들인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작은 '어벤져스'로 대표되는 기존 마블 영화와는 여러모로 결을 달리한다. '정의의 히어로가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을 물리친다'는 히어로 물의 기본 서사를 완전히 뒤집고 악당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수십 년간 '마블 코믹스'를 대표하는 히어로였던 '스파이더맨'의 숙적 '베놈'이 그 주인공이다.

성인 남성의 배가 남는 덩치에 온몸에 페기름을 덕지덕지 바른 듯한 흉측한 모습, 섬뜩하고 날카로운 치아는 악마를 연상케 하고 위조리가 치켜 올라간 눈에는 광기가 감돈다. 아무리 뜯어봐도 히어로 물의 주인공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영화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

지않은 열혈 기자 '에디 브룩'(톰 하디 분)이 외계 생물체 '심비오트'의 숙주가 된 후 스파이더맨의 숙적 '베놈'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브룩은 노숙자를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대 기업 '라이프 파운데이션'에 잠입했다가 실험실에서 심비오트의 공격을 받는다.

심비오트는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우주 탐사 중 발견한 외계 생물체로 지구에서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반드시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설정이다.

브룩은 심비오트의 힘으로 라이프 파운데이션을 탈출하지만, 자아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말을 걸어오는 심비오트의 존재에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게다가 인간을 보면 먹여치울 생각부터 하는 심비오트의 본성에 경악하게 된다.

'베놈'은 개봉 전부터 전 세계 영화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마블 캐릭터의 영화지만 마블이 아닌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블 코믹스 캐릭터들의 복잡한 판권 문제와 얽혀있다. 한때 경영난에 시달리던 마블 코믹스는 생존을 위해 캐릭터들의 판권을 여기저기에 내다 팔았다. 그 결과 스파이더맨의 판권은 소니 픽처스가, '엑스맨' 시리즈의 판권은 20세기폭스가 가지게 됐다.

소니는 '베놈'을 시작으로 '마블 스튜디오'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와는 별개로 '소니 유니버스 오브 마블 캐릭터스'(SUMC)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베놈'의 뒤를 이을 후속작 라인업까지 어느 정도 공개된 상태다.

선봉장인 '베놈'의 흥행 여부에 SUMC의 성패가 걸린 만큼 세계 영화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이 당연하다.

3일 베일을 벗은 '베놈'은 후반부로 갈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영화다. 달리 말하면 전반부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시리즈의 첫 작품이자 한 세계관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보니 초반부에 이것저것 설명할 것이 많은 탓일 수 있겠다. 어찌 보면 MCU의 초석이 된 '아이언맨' 1편과 비슷한 역할을 맡은 셈이다.

실제로 서사 구조도 '아이언맨' 1편과 흡사하다.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 된 배경부터 오메가 파우더의 '아이언 뿔'을 무찌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아이언맨'처럼 '베놈'도 에디 브룩이 심비오트 '베놈'과 결합하게 된 이유와 라이프 파운데이션을 무찌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2명의 인간과 2체의 심비오트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뒤엉키는 장면에서 검은 액체 형태인 심비오트의 특성을 살펴 기존에 접하지 못한 영상을 선보인다.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등 주연 캐릭터로뿐 아니라 조연의 악역 캐릭터로도 단독 블록버스터 제작을 가능케 하는 마블 코믹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라이징 스타들의 조합 '소울'

안효섭·차은우·정유안·방재민 그룹 결성

배우 안효섭과 그룹아스트로의 차은우, 신예 배우 정유안, 엠넷 '고등래퍼' 출신 방재민이 프로젝트 유닛 '소울'(S.O.U.L)을 결성했다.

2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329에 따르면 소울은 이날 오후 6시 음원사이트와 유튜브에 데뷔곡 '내 꿈이 좋아'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 곡은 합함을 베이스로 한 R&B 댄스곡으로, 꿈을 응원하고 함께 이뤄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소울'은 배우와 가수가 섞인 '라이징 스타'들의 조합이란 점에서 결성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안효섭은 최근 종영한 SBS TV '서른이 지난 열일곱입니다'에서 유찬 역을 맡아 사랑받았고, '얼굴 천재' 차은우는 아스트로 멤버이자 JTBC 드라마 '내 아이는 강남미인'에서 연기력을 보여줬다. 또 정유안은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에서 하정우 아역으로, 방재민은 '고등래퍼'에서 랩 실력으로 주목받았다.



이성민 vs 유재명 '비스트'서 연기 대결



배우 이성민과 유재명이 영화 '비스트'(가제)에서 연기 대결을 펼친다.

'비스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을 놓고 대립하는 두 형사의 정면 대결을 그린 범죄 액션물이다.

이성민이 범인을 잡기 위해 위험한 거래에 가담한 형사 '정한수' 역을 맡는다.

그의 라이벌이자 사건 해결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는 형사 '한민태'는 유재명이 연기한다.

'비스트'는 영화 '안시성'을 제작한 ㈜스튜디오앤뉴의 신작으로 '방황하는 칼날'(2014), '베스트셀러'(2010)의 각본과 연출을 맡아 호평받은 이정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에픽하이, 오랜 상의 끝 YG엔터와 결별...새 출발

3인조 힙합그룹 에픽하이(타블로·DJ 투컷·미쓰라진)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이끄는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YG는 "에픽하이와 전속계약을 종료한다"며 "오랜 상의 끝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YG는 "7년간 멋진 음악과 함께 준 타블로, 에픽하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 그들의 멋진 새 출발을 응원한다"며 "많은 분이 에픽하이의 앞날을 축복해달라"고 당부했다.

2003년에 에픽하이로 데뷔한 타블로는 2011년 9월 YG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1집 '열꽃'을 냈다.

이듬해부터 나머지 두 멤버 DJ 투컷과 미쓰라진도 YG에서 한술밥을 먹었다.

타블로는 2015년부터 핵오밴드, 검정치마, 코드콘서트 등이 소속된 YG 산하 인디 레이블 하이그라운드(HIGHGROUND)를 이끌었으나 지난해 7월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워너원, 내달 새 앨범 컴백

연장 여부 미정... 마지막 활동 될 수도

그룹 워너원이 다음달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3일 매니지먼트사 스윙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워너원은 11월 19일 발매를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12월이 활동만료 기간이어서 예정대로 해산한다면 마지막 앨범이 된다.

스윙 관계자는 "11월 19일 월요일 발매를 계획하고 있으나 직전 주말에 해외 일정이 있어서 귀국 후 하루 정

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 20일 컴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타이틀곡은 선정됐으며, 앨범 형태는 지금으로선 미니앨범을 고려하지만 정확한 트랙리스트가 나와야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워너원은 지난해 8월 데뷔해 예정대로라면 12월 31일 활동이 끝난다. 그러나 CJ ENM과 스윙, 펌



버들의 각 소속사가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윙 관계자는 "몇 차례 더 만나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아직 예정대로 해산할지, 연장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너원 한 멤버의 기획사 관계자도

"몇 개월 더 이어가자는 의견부터 워너원 활동 기간을 정해놓고 각 기획사에서 개별 활동을 하자는 생각, 내년 1월 시상식까지 한 뒤 활동을 종료하자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팬들의 의견도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장 증명하고 싶어요"

소유, 라틴 댄스 '까만 밤' 컴백... 첫 작사 도전

소유(본명 강지현·25)가 달라졌다. 에너지 넘치던 씨스타 시절 소녀는 떠나보내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곱씹어냈다.

깊어진 가을 솔로 앨범 '파트.2:라:프:레시'(PART.2 RE:FRESH)로 돌아온 소유를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서 만났다.

소유는 새 앨범에 한상 잘 차린 한정식처럼 풍성한 장르를 펼쳐냈다. 스타프로듀서팀 그루비룸이 편곡한 타이틀곡 '까만 밤'은 라틴 리듬을 토대로 한 고혹적인 댄스곡이며, '퍼니'(Funny)는 씨스타 시절을 연상케 하는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 댄스곡이다. '너와 함께'에선 소유 특유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음색이 두드러진다.

'무덤덤', '벌어진다', '잔다름' 세 곡은 이별이라는 같은 주제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준다.

소유는 발라드가 음원차트를 장악한 가을에 댄스곡으로 컴백한 이유에 대해 '성장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르를 과감하게 바꿔 신선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얘기도.

두 번째 솔로 앨범인 만큼 미숙함은 털어냈다. 작사와 편곡은 물론 뮤직비디오·재킷 촬영까지 소유의 손이 미처



지 않은 곳이 없다.

소유는 "씨스타 때는 참여 지분이 5% 정도였던 것 같다. 이번에는 제 의견이 80%는 들어갔다. 솔로 가수가 된 만큼, 제가 빨리 결정 내리지 않으면 스타프 모두가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번 제때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활동 목표를 묻자 소유는 "1등은 생각하지 않는다. 제 노래로 많은 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저 제가 주어진 것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전했다.